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행동, 교육지원활동 및 도움인식정도를 중심으로

전 은 다¹⁾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윤 기 봉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부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가정경제수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애정, 자율성, 과잉간섭),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고등학교 생 629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카이제곱검증과 일원분산분석(F 검증과 Scheffe 사후검증), 그리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수준을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 아버지의 과잉간섭,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는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분석에서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느낄수록 청소년은 낮은 학업성취보다는 중간의 학업성취를 보일 확률이 높고, 어머니가 자율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일 확률이 적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느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낮기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의 학업성취 집단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의 학업성취,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교육지원활동,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자녀의 도움인식정도

1)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강사 (E-mail: eundalife@naver.com)

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자녀의 학업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이미 여러 연구와 보도를 통해 알고 있고, 특히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부모들은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근(1996)은 우리 사회에서 학업성취는 각종 교육적, 사회적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학업성취의 기준인 성적은 궁극적으로 획득하게 될 사회적 지위를 예고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 양과 내용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가정에서나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 고등학교 시기는 본격적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는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적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으며(이주리, 2010, Grdon & Cui, 2014),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 탐색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 개인의 특성(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등)과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체계(가정, 학교, 이웃환경 등)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가정환경 변인 중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부모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관련 변인은 주로 부모자녀관계(김선숙, 고미선, 2007), 부모양육태도(이선애, 2009), 교육지원활동(추성엽, 임성문, 2008) 등 다양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업성취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부모관련 변인들을 함께 다루는 연구는 적어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변수용, 김경근, 2008),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유무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주리, 2010; 현지영, 김경근, 2015)과 교육수준(박창남, 도종수, 2005; 이주리, 2010; 이종섭, 이윤교, 2011; 현지영, 김경근, 2015; Yunyun, Fang, Sha, Liang, & Qi, 2015)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기혼 취업여성의 자녀들 중 90%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모는 시간투자에서 자녀의 학교관련 행사나 타 학부모들과의 비공식적 만남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교육을 지원하므로(최형재, 2008),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의 학업 지원에 차이가 없다(전춘애, 2013)고 한다. 반면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딸의 학업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김현주, 이병훈, 2006)와 어머니의 취업은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정환, 2002)가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학업성취에 직접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간접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즉 부모의 신

념과 행동을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와 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한다(Davis-Kean, 2005). 즉,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주리, 2010; 이중섭, 이용교, 2011)를 통해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간접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 이점이 자녀의 교육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감소한다(김현주, 2007; 현지영, 김경근, 2015)는 연구도 있다.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 변인을 함께 고려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Coleman(1988)은 가정배경은 가정 내 인적 자원(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적 자원(가구소득), 사회적 자원(부모자녀관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시간의 투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자원보다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 심리적 자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변인들 중 부모양육행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부모양육행동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를 잘 돌보는 양육행동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근아, 2011; 정갑순, 2002), 부모의 과보호

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근아, 2011)가 있다. 이에 대해 박경인, 정승원과 신안나(2013)도 합리-애정형은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방임형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학대형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지배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박영신, 김의철, 2003), 부모가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며 적대적이며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갑순, 2002).

이와 관련된 비교 문화적 연구들에 의하면, Li, Walker와 Armstrong(2014)은 중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역할(부모감독과 애착)과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부모역할과 학업성취 사이에 관계가 매우 낮다고 하였다. 반면 Leung, Lau와 Lam(1998)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미국, 호주 등과는 다르게 홍콩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Coleman(1988)이 앞서 제시한 가정배경의 사회적 자원 중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시간 투입을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지원은 청소년이 삶의 선택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되며,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최인재, 오수연, 2010). 부모의 자녀교육지원활동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교육을 지원하려는 심리적 태도와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 행위로 정의된다(심미옥, 2003).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은 자녀의 발달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초등학

교 시절에는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연관된다. 그러나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부모들이 학교활동 참여를 통해 부모-교사간의 상호협력을 이룰 기회와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덜 제공받기 때문에 부모 관여와 자녀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은 초등학교보다 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ill & Tyson, 2009).

부모의 학교생활지원행동과 자녀의 학업 성취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특히 학교 관련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다른 지원행동에 비해 학업성취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변수용, 김경근, 2008; 정현숙, 2002; Grdon & Cui, 2012; Miedel & Reynolds, 1999). 반면 교육지원활동을 부모의 시간적, 물질적 투자로 구분하여 저소득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노지영(2015)은 부모의 물질적 투자(인지적 자극물 제공, 학습 관련 교과 외 활동)가 시간적 투자(부모와의 외부활동 정도와 부모의 학교참여 정도)에 비해 학업성취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많은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연관된다는 '다(多)지원 고(高) 성취' 현상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김경숙, 2009). 그러나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신혜진, 2011; 조혜영, 이경상, 2005)도 있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가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어머니의 더 많은 학교 관여가 자녀의 더 높은 학업성취와 연관된다는 연구(Sandra, Heather, Kathleen, Holly, & Eric, 2006)는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은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활동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의 지각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현주(2001)는 교육지원활동이 자녀의 필요에 부합된 것일 때는 효과가 크지만, 부모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은 자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여 학업성취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특히 중, 고등학생은 학업성취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여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교육지원활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직결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 시기가 되면서 점차 아이들은 독립적이 되어 부모의 학교 방문이라는 지원활동을 원하지 않는다(Collins & Laursen, 2004). 또한 중, 고등학생은 초등학생보다 부모의 학교관련 지원활동과 통제활동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전춘애, 2013). 이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지원활동을 더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무시한 채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은 자녀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함께 자녀가 이러한 지원활동에 대해 도움으로 인식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학업성취와 부모의 교육지원활동, 그리고 지원활동에 대한 자녀의 도움인식정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지원활동에 대한 도움인식정도 변인은 부모보다 자녀의 보고에 근거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이나 교육지원활동과 자녀의 보고는 차이가 있지만, 자녀의 지각이 부모 보고보다 자녀 발달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인지모델에서는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보다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 및 표상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설명(문경주, 오경자, 2002)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보고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한편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방법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두에게 획일화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어떤 변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수준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학생의 성별과 학교급 변인, 부의 학력과 소득수준, 모의 취업유무 변인)과 사회, 심리적 자원 중의 하나인 부모양육행동, 그리고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의 예측변인을 탐색하는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둘러싼 미시체계 중 가족, 특히 부모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이에 대해 자녀가 지각하는 도움인식정도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학생의 성별과 학교급, 부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가정경제수준), 부모양육행동(애정, 자율성, 과잉간섭),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는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부모양육행동은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는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업성취 집단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학생, 고등학생 629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629)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학생	306(48.6)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5(0.8)
	여학생	323(51.4)		고졸	128(20.3)
학년	중학생	1학년		전문대졸	35(5.6)
		2학년		대학교졸	302(48.0)
		3학년		대학원졸	104(16.5)
	고등 학생	1학년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1(0.2)
		2학년		고졸	7(1.1)
학업성취	하	215(34.2)		전문대졸	169(26.9)
		54(8.6)		대학교졸	51(8.1)
		43(6.8)		대학원졸	295(46.9)
		130(20.7)	가정 경제수준	하	25(2.7)
		256(40.7)		중하	78(8.4)
학업성취	중상	168(26.7)		중	443(47.7)
	상	32(5.1)		중상	312(33.6)
모의 취업유무*	주부	279(46.0)		상	58(6.3)
	취업	328(54.0)			

주. * 무응답에 의한 결측값

표 1과 같이 중학생 360명, 고등학생 269명으로, 남학생은 306명, 여학생은 323명이었다. 이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7.5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4.6세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교사가 전체의 49.3%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18.9%), 전문직(9.7%), 서비스직 종사자(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전체의 46.0%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이 64.5%, 전문대 졸업이 5.6%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이 55%, 전문대 졸업이 26.9%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교육지원활동,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자녀의 도움인식정도, 그리고 학업성취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은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과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및 가정경제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은 해당되는 본인의 성별과 학교급 및 학년에 응

답하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무학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7개의 응답 중 해당되는 교육정도에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어머니의 직업에서 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부터 전문직, 기업주 등 취업한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가정경제 수준은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양육행동

부모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경주와 오경자(2002)의 한국판 부모-자녀결합형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Parker(1979)가 제작한 PBI(Parenting Bonding Instrument)에 근거하고 있다. PBI는 성인을 대상으로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부모 각각의 관계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문경주와 오경자(2002)는 아동과 청소년이 현재 자신의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도록 일부 문항들을 수정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3개 요인(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시 이 척도를 중·고등학교생이 응답하기 쉽도록 일부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자료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5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 문항을 제외한 총 21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행동을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자녀에게 보이는 부모의 외현적 행동으로 정의한다(Luster, Rhoades, & Hass, 1989). 요인 I은 부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잘 돌봐주거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애정’, 요인 II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거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자율성’, 그리고 요인 III은 자녀의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과잉보호하는 ‘과잉간섭’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전체 신뢰도는 모-자녀가 Cronbach $\alpha = .92$, 부-자녀가 Cronbach $\alpha = .91$ 로 매우 높았다. ‘애정’ 요인(10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가 애정적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모-자녀 Cronbach $\alpha = .93$, 부-자녀 Cronbach $\alpha = .92$). ‘자율성’ 요인(6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며(모-자녀 Cronbach $\alpha = .85$, 부-자녀 Cronbach $\alpha = .83$), ‘과잉간섭’ 요인(5문항)은 모든 문항들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 행동에 대해 과잉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자녀가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모-자녀 Cronbach $\alpha = .76$, 부-자녀 Cronbach $\alpha = .75$).

부모의 교육지원활동

부모의 자녀교육지원활동 척도는 심미옥(2003)의 자녀교육지원활동 문항들을 중심으로 김경숙(2009), 박현주(2001), 신혜진(2011), Hill과 Tyson(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한 전춘애(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31개 문항으로, 성적향상 관련활동, 가정학습 환경 조성활동, 통제활동, 학교관련 지원활동, 물리적 교육환경 조성활동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성적향상 관련활동은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편이

다.", 가정학습환경 조성활동은 "내가 공부할 때 조용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통제활동은 "내 공부를 위해 TV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시간을 통제하신다.", 학교관련 지원활동은 "내 교육을 위해 여러 모임(반모임, 성적이 유사한 친구 부모들과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정보를 얻으신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교육환경 조성활동은 "내 교육을 위해 교육환경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이사하기를 원하신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자녀의 도움 인식정도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춘애(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교육지원활동 척도의 31개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응답범주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점)'부터 '상당히 도움이 된다(5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업성취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객관적인 학교성적과

주관적인 학업성취도에 대해 청소년 자신이 지각한 것으로 측정한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2014)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즉, 청소년 자신이 학교에서의 성적을 5개 범주(상, 중상, 중, 중하, 하)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응답한 것으로 학업성취를 측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4개교, 총 8개교에서 이루어졌다. 각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협조 하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응답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2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카이제곱검증과 일원분산분석(F 검증과 Scheffe 사후검증), 그리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 부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가정경제수준), 부모양육행동(애정, 자율성, 과잉간섭),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업성취 집단별로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교

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의 차이

연구문제 1-1, 1-2, 1-3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성별 및 학교급은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취업유무도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반면,

표 2. 학업성취 집단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

(N = 629)

변수		구분	학업성취 집단 ¹⁾			X ²
			상 (n = 200)	중 (n = 256)	하 (n = 173)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성별	남	98(32.0%)	117(38.2%)	91(29.7%)	X ² = 1.98
		여	102(31.6%)	139(43.0%)	82(25.4%)	
	학교급	중학교	118(32.8%)	150(41.7%)	92(25.6%)	X ² = 1.61
		고등학교	82(30.5%)	106(39.4%)	81(30.1%)	
	부의 교육 수준	전문대 이하	33(19.6%)	69(41.1%)	66(39.3%)	X ² = 30.15***
		4년제	117(38.7%)	121(40.1%)	64(21.2%)	
		대학원 이상	42(40.4%)	43(41.3%)	19(18.3%)	
	모의 취업유무	주부	99(35.5%)	114(40.9%)	66(23.7%)	X ² = 3.78
		취업	96(29.3%)	135(41.2%)	97(29.6%)	
	가정 경제 수준 ²⁾	하	13(15.3%)	29(34.1%)	43(50.6%)	X ² = 55.44***
중		84(25.8%)	146(44.9%)	95(29.2%)		
상		99(46.5%)	80(37.6%)	34(16.0%)		

*** p < .001.

- 1)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상(5.1%), 중상(26.7%), 중(40.7%), 중하(20.7%), 하(6.8%)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 크기의 치우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집단을 중심으로 중상과 상은 '상(上: 31.8%)'으로, 중은 그대로 '중(中: 40.7%)'으로, 하와 중하를 '하(下: 27.5%)'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 청소년이 응답한 가정경제수준을 중상과 상은 '상(上)' 집단, 중은 '중(中)' 집단, 하, 중하를 '하(下)'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X^2 = 30.15, p < .001$)과 가정경제수준($X^2 = 55.44, p < .001$)은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에 속하였고, 가정경제수준이 높아지면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상(上)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부모양육행동,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모두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모 $F = 3.55, p < .05$, 부 $F = 3.79,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 의

하면, 학업성취 하(下)집단(모 $M = 30.70$, 부 $M = 28.87$)보다 상(上)집단(모 $M = 32.19$, 부 $M = 30.79$)에서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자녀가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자율성과 과잉간섭, 그리고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과잉간섭 양육행동은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F = 4.78, p < .01$)가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가 하(下)집단($M = 19.53$)보다 상(上)인 집단($M = 20.49$)에서 아버지가 과잉간섭을 덜 행하였다. 즉, 학업성취가 낮은

표 3. 학업성취 집단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의 차이 ($N = 629$)

변수	구분	학업성취 집단 ¹⁾			F(Scheffe)	
		상 (n = 200)	중 (n = 256)	하 (n = 173)		
양육 행동	모	애정	32.19(5.76)	32.06(5.92)	30.70(6.12)	3.55* (상 > 하)
		자율성	18.74(3.66)	18.74(3.69)	18.56(3.98)	0.15
		과잉 간섭	19.72(3.31)	19.15(3.53)	19.02(3.53)	2.23
	부	애정	30.79(6.23)	30.01(6.75)	28.87(7.00)	3.79* (상 > 하)
		자율성	18.90(3.52)	18.42(3.88)	18.23(3.91)	1.60
		과잉 간섭	20.49(3.38)	19.63(3.64)	19.53(3.40)	4.78** (상 > 하)
교육지원활동		95.89(15.70)	92.38(16.99)	86.70(19.92)	12.98*** (상, 중 > 하)	
도움인식정도		106.49(18.92)	102.08(19.82)	95.77(20.26)	13.73*** (상, 중 > 하)	

* $p < .05$. ** $p < .01$. *** $p < .001$.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아버지의 과잉간섭이 덜 행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는 모두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활동($F = 12.98, p < .001$)은 학업성취가 상(上)인 집단($M = 95.89$)과 중(中)인 집단($M = 92.38$)이 하(下)인 집단($M = 86.7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움인식정도($F = 13.73, p < .001$) 또한 학업성취가 상(上)집단($M = 106.49$)과 중(中)집단($M = 102.08$)이 하(下)집단($M = 95.7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가 낮은 집단의 부모는 교육지원활동을 적게 하고, 청소년 자녀도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자신에게 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 탐색

연구문제 2인 학업성취의 상, 중, 하 집단을 예측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을 번갈아가면서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한 후, 기준집단과 비교하는 총 3회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절편만 고려한 기저모형의 $-2LL(-2 \text{ Log Likelihood} = 1.17)$ 보다 설명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킨 연구모형의 $-2LL$ 값이 1.07으로 감소하였고, 이 두 값의 차이($\chi^2 = 100.19, df = 3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 < .001$)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기저모형에 비해 좋아졌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우선 학업성취가 중(中)인 집

단을 기준으로 학업성취 상(上)인 집단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경제수준이 상(上)인 집단보다 중(中)인 집단이 학업성취가 중(中)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양육행동, 그리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는 학업성취 상(上)과 중(中)집단을 예측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학업성취 하(下)인 집단을 기준으로 학업성취 중(中)인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정경제수준과 부모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경제수준 상(上)집단이 하(下)인 집단보다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하(下)보다는 중(中)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부모양육행동 중에서는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청소년은 학업성취가 하(下)인 집단보다는 중(中)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 하(下)집단을 기준으로 학업성취 상(上)인 집단을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과 부모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자율성, 그리고 도움인식정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가정경제수준이 하(下)인 집단과 중(中)인 집단은 각각 경제수준이 상(上)인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가 상(上)인 집단보다 하(下)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행동 중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상(上)인 집단보다는 하(下)인 집단에 속

표 4. 학업성취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 학업성취	상 VS 중			중 VS 하			상 VS 하		
	β	SE	Exp (β)	β	SE	Exp (β)	β	SE	Exp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03	.21	1.03	-.41	.23	.66	-.44	.26	.64
학교급	.31	.22	1.37	-.09	.24	.91	-.40	.26	.67
부 학력 (대학원이상=0)									
4년제	.14	.28	.87	.02	.34	1.02	.16	.36	1.18
전문대 이하	-.26	.35	1.30	-.39	.38	.68	-.65	.42	.52
모 취업유무	-.19	.21	.83	.16	.24	1.18	.35	.26	1.42
경제수준(상=0)									
중	-.77**	.24	2.16	-.47	.30	.62	-1.25***	.31	.29
하	-.57	.43	1.77	-1.18**	.41	.31	-1.75***	.46	.17
부모 양육행동									
모 애정	.03	.03	1.03	.07*	.03	1.08	.04	.04	1.40
모 자율성	.04	.05	1.04	-.09	.06	.91	-.13*	.06	.87
모 과잉간섭	.08	.05	.92	-.01	.05	.99	.07	.06	1.08
부 애정	-.00	.03	1.00	-.03	.03	.97	-.03	.03	.97
부 자율성	.01	.05	.99	.01	.05	1.01	.02	.06	1.06
부 과잉간섭	.04	.05	.96	.02	.05	1.02	.06	.06	1.08
교육지원활동	.01	.01	.99	.00	.01	1.00	.01	.01	1.01
도움인식정도	.01	.01	.99	.01	.01	1.01	.02**	.01	1.02
절편	-2.31*	1.33		-.25	1.18		-2.56	1.33	
X ² (df) = 100.19(30)*** Cox & Snell R ² = .17 Nagelke rke R ² = .19									

* $p < .05$. ** $p < .01$. *** $p < .001$.

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성취가 하(下)인 집단보다는 상(上)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자녀의 성별, 학

교급, 부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가정경제수준), 부모양육행동(애정, 자율성, 과잉간섭),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학업성취 집단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행동, 그리고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 변인은 학업성취 집단 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수학과 과학에서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독서 등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성취에 비교적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남녀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Edgerton, Peter와 Roberts(2014)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분석결과도 국어, 영어, 수학 전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의 표준점수 평균보다 높아 점차 여학생 우위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5.11.30). 이는 오늘날 남녀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부모의 관심을 받고,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사회진출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알파걸이 등장한다는 Kindlon(2007)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성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량이 많아지고, 학습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학업성적이 떨어진다고 설명한 김태균(2008)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상(上)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 등 가족 자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박창남, 도종수(2005), 이주리(2010), 현지영, 김경근(2015), Yunyun 등(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창시절의 교육환경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한 김영철(2012)의 결과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교육지원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춘애(2013)의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 변인은 학업성취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았을 때 자녀의 학업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김현주, 이병훈, 2006; 이정환, 2002)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기혼여성의 취업이 점차 증가하고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교육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머니의 취업유무 변인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뿐만 아니라 직종, 취업스트레스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 모두 청소년 자녀에게 애정적으로 대하는 경우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가 과잉간섭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더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를 잘 돌보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부모의 과보호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근아(2011), 정갑순(2002), Sandra 등(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현지영과 김경근(2015)은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경제수준이 높으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 변인이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청소년의 학업성취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계층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확률이 적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성취 차이가 점차 심화되어 양극화되어가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학업성취 향상 지도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학업성취 향상과 연관된 지도방안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부모 대상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근본적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방법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은 학업성취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

성취가 낮은 집단의 자녀가 부모의 교육지원 활동이 적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교생활지원행동과 자녀의 학업 성취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특히 학교 관련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다른 지원행동에 비해 학업성취도와 더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한 정현숙(2002), Grdon과 Cui(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시간(조혜영, 이경상, 2005)과 학부모간 사회관계망(신혜진, 2011)과 같은 부모의 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학업성취가 낮은 집단에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을 도움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교육지원행동이 자녀의 필요에 부합된 것일 때는 효과가 크지만, 부모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은 자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여 학업성취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박현주(2001)의 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일방적인 지원이 자녀와의 관계에 갈등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을 도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업성취 저하로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여,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 그리고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정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학업성취가 중(中)인 집단과 비교하여 상(上)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정경제수준이 상(上)인 집단이 하(下)인

집단보다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하(下)보다는 중(中)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부모양육행동 중에서는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청소년은 학업성취가 하(下)인 집단보다는 중(中)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가정경제수준이 하(下)인 집단과 중(中)인 집단은 각각 경제수준이 상(上)인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가 상(上)인 집단보다 하(下)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부모양육행동 중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상(上)인 집단보다는 하(下)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성취가 하(下)인 집단보다는 상(上)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업성취 상(上)집단 대 중(中)집단, 중(中)집단 대 하(下)집단, 그리고 상(上)집단 대 하(下)집단 모두에서 가정경제수준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 학업성취에 있어 가정환경, 특히 경제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경우 사교육을 시키는 등 여러 측면의 교육지원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시기에도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가 적응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오지현과 홍정희(2014)의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며,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높은 학업성취를 이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특이하게 학업성취가 상(上)집단 대 하(下)집단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상(上)인 집단보다는 하(下)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청소년에게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는 경우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타율보다는 자율로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자녀의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황혜자와 최윤하(2003)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방임형 프로파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박경인 등(2013)의 결과, 그리고 어머니가 무관심, 감독부족, 심리적 통제, 독립성 막기 등의 7개 요인으로 구성된 역기능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김용곤(2011)의 결과와는 어느 정도 연관된다. 즉, 방임형과 자율형, 역기능적 양육태도를 같은 성격의 양육유형으로 간주할 수 없지만,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학업을 하도록 격려하는 자율형이 학업성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Leung 등(1998)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미국, 호주 등과 다르게 홍콩에서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가 낮은 집단에서는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공부방식이 효율적인지,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가고 있는지 등을 부모가 개입을 하여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학업성취가 낮은 자녀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 청소년의 부모는 도시의 중류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모든 계층과 지역의 청소년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으므로,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양육행동, 교육지원활동, 도움인식정도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업성취와 연관된 연구들은 대체로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과목 성적, 예를 들어 영어나 수학성적 등으로 학업성취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임양미, 2014; 현지영, 김경근, 2015; Grdon & Cui, 2014). 그러나 본 연구는 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각 학생의 구체적인 성적을 학교 측에서 제공받는 것이 어려워 자기보고식 단일문항으로 학업성취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 과목 성적이나 주요과목 성적 등을 이용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가정경제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학업수준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우선

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를 낮춘다는 결과는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학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확립화된 방법이 아닌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후에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경제수준과 부모양육행동과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도움인식정도의 중요성이 제시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상담과 부모교육 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근 (1996). 한국 중학생의 학업성취 결정 요인. *교육문제연구*, 8, 83-103.
- 김경숙 (2009). 강남 학부모의 자녀 학업지원활동 특성과 자녀교육에 대한 신념.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근아 (2011). 총동성, 부모양육태도, 생활습관, 자기조절 학습능력, 학습동기가 초등학교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 고미선 (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 김영철 (2012). 대학진학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역 및 학습환경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7(3), 127-171.
- 김용곤 (2011). 부모의 역기능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중재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균 (2008).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시간, 학업흥미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7).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과 사회·문화적 자원의 다중상호작용방식. *한국사회학*, 41(6), 171-203.
- 김현주, 이병훈 (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 성차이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6, 138-162.
- 노지영 (2015). 부모의 시간적, 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경인, 정승원, 신안나 (2013). 초·중학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2), 91-118.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청소년의 효도에 대한 지각과 학업성취: 부모정서적 지원과 부모관계 효능감의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415-443.
- 박창남, 도종수 (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박현주 (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수용, 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신혜진 (2011). 중학교 학부모간 사회관계망이 자녀교육 관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145-169.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오지현, 홍정희 (2014).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에 따른 군과 청소년의 적응: 정서조절방식과 탄력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4), 77-95.
- 이선애 (2009). 가족자원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4(1), 5-24.
- 이정환 (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 이주리 (2010). 가족자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의 매개효과 차이검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1), 137-146.
- 이중섭, 이용교 (2011). 부모의 학력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빈곤, 비행, 부모자녀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16(1), 65-88.
- 임양미 (2014).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6(3), 113-131.
- 전춘애 (201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1), 291-317.
- 정갑순 (2002). 부모, 부자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 (2002).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영, 이경상 (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최인재, 오수연 (201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부모지원, 자아존중감 및 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7(3), 95-113.
- 최형재 (2008).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 추성엽, 임성문 (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 한국일보 (2015.11.30). 수능부터 공무원시험까지. 왜 여자가 성적이 좋을까. <http://www.hankookilbo.com/v/545ff4e3f40948beb9d9426aa38f5863>에서 2016년 1월 9일 인출.
- 현지영, 김경근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 학업성취간 구조적 관계 분석: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2), 125-154.
- 황혜자, 최윤하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llins, W. A., & Laursen, B. (2004).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In R. M. Lerner & L. Steinberg(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2nd ed., pp. 331-362). Hoboken, NJ : Wiley.
- Davis-Kean, P. E. (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94-304.
- Edgerton, J. D., Peter, T., & Roberts, .W. (2014). Gendered habitus and gender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0(1), 182-212
- Grdon, M., & Cui, M. (2012) The effect of school-specific parenting processes on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Family Relations*, 61, 728-741.
- Grdon, M., & Cui, M. (2014). School-related parental involvement and adolescent academic achievement: The role of community poverty.

- Family Relations*, 63, 616-626.
- Hill, N. E., & Tyson, D. F. (2009).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 school: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the strategies that promote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3), 740-763.
- Kindlon, D. (2007). 새로운 여자의 탄생 알파걸. 최정숙 (역). 서울: 미래의 창. (원본 발간 일, 2006)
- Leung, K., Lau, S., & Lam, W. L. (1998). Parental styles and academic achievement: A cross-cultur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4(2), 157-172.
- Li, H, Walker, R., & Armstrong, D. (2014). International note: Parenting, academic achievement and problem behaviour among Chinese adolesce. *Journal of Adolescents*, 37, 387-389.
- Luster, T., Rhoades, K., & Hass, B.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behavior: A test of the Koh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39-147.
- Miedel, T.W. & J. A. Reynolds (1999). Parent Involvement in early intervention for disadvantaged children: Does it matter?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7(4), 379-402.
-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Sandra, D. S., Heather, B. W., Kathleen, M., Holly, M. K., & Eric, D. (2006). Mother-child relationship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family educational involvement and child achievement.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1), 49-57.
- Yunyun, Z., Fang, L., Sha, T., Liang, L., & Qi, D. (2015). Family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investment and migrant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n China. *Psychological Science*, 1, 19-26.
- 1 차원고접수 : 2016. 04. 10.
수정원고접수 : 2016. 05. 16.
최종게재결정 : 2016. 06. 02.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Parenting Behavior, Parents'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nd Helpfulness of Support Activitie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Jun, Eun Da¹⁾

Yun, Kibong²⁾

¹⁾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²⁾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variables that predict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Three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were posited: high, medium, and low. It was found that family environment, parenting behaviors (e.g. affection, autonomy, and intrusiveness), and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s'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nd helpfulness of the support activities were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influenced academic achievement among these individuals. With the help of 62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through chi-square tests, one-way ANOVAs, the Scheffe post hoc test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amily economic status predicted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Moreover, mothers' affectionate behaviors were linked to a greater possibility of an adolescent showing a middl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On the other hand, autonomous parenting was linked to a less possibility of an adolescent showing a high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Lastly,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parents'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s helpful showed higher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In light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parents can apply this information as a basis with which to understand that the key solution is to approach each adolescent with a differentiated teaching method that fits that adolescent well.

Keywords: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parenting behavior, parents'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dolescent's perception of helpfulness of support activities.